

수영장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고, 한 생명을 구하다



강원 영동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강릉아산병원 이기현 응급의학과 전담교수.

모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지난 8월 강릉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정기적으로 함께 수영하던 부부는 어느 때처럼 가까운 시내 수영장을 방문했다. 평소처럼 수영을 하던 아내는 의식을 잃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간신히 남편을 물에서 건져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뛰어와 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했다. 뒤이어 도착한 한 사람은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환자가 물을 토해냈고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인공호흡을 하던 사람이 마침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가 빠른 시간에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날 현장에서 가슴압박을 한 사람은 강릉아산병원 김은성 · 이윤영

간호사였고, 인공호흡을 한 사람은 강릉아산병원 이기현 응급의학과 전담교수였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서로 물어볼 새가 없었는데, 사고 현장에 의료진이 셋이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슴압박을 한 분들이 우리 병원 간호사라고 하더군요. 119 구급대원은 제가 의사라고 해도 반신반의 했는데, 얼마 전 응급실에서 마주쳐서 오해를 풀었어요.” 강릉아산병원 이기현 응급의학과 전담교수가 사고 당시를 되돌아보며 말했다.



이기현 전담교수가 당시 응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다

소생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기현 전담교수는 응급실은 물론 병원 내에서 심정지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위급 상황의 분위기를 잘 안다. “병원 내에서도 뭔가 긴급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가보면 응급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날 수영장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본 거였어요. 먼저 도착한 두 분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지만 물에 빠진 익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맡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사고 현장에서의 인공호흡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모든 시설과 장비, 인력이 갖춰진 병원 환경에서는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장치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오로지 상대의 입에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마우스 투 마우스(mouth-to-mouth) 방법밖에는 없었다.

“인공호흡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저도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구를 쓸 때와 제 몸을 쓸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체험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수영장 사고 환자는 폐에 물이 들어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의 협력이 생명을 구해내

이기현 전담교수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2020년부터 응급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응급환자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니 내과, 외과는 물론 독성학이나 환경의학 등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위급하던 환자들이 처치를 받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춘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처치하는 일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 응급 처치한 환자를 해당 진료과로 인계한 후에도 ‘필요한 처치를 못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생각이 마음 한 편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의학서적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다른 의료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날도 저 혼자라면 환자를 그렇게 빨리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한 두 분의 간호사님과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라고 한 후 응급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글 편집부**



이기현 전담교수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했던 강릉아산병원 김은성 간호사(왼쪽)와 이윤영 간호사(오른쪽).